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대학생 및 노인을 중심으로

이 현 지

방 회 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노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남녀 대학생 64명과 남녀 노인 64명을 대상으로 명시적 태도검사, 명시적 선호도검사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학생은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내집단 선호를 보인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두 수준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를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명시적 수준에서는 노인에 비해 대학생들이 노인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암묵적 수준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노인이 대학생보다 노인을 더 선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노인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이론 및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역시 기술하였다.

주요어 : 명시적 태도, 암묵적 태도, 암묵적 연합검사, 접촉경험

[†] 교신저자 : 방회정,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hjbang@ewha.ac.kr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건강 악화, 역할 상실, 심리적 고립 등의 노인이 경험하는 개인적 어려움을 넘어, 노인부양의 문제, 사회보장비용 증가, 노동력 감소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원영희, 2003).

특히 경로사상이 강조되던 전통적 가치체계와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가치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이러한 노인 문제 뿐 아니라, 노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고정관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전미경, 김정현, 2008). 즉,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는 여전히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노인 공경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지속시켜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관 수용에 실패한 노인들을 비생산적이고 경직된 존재,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짐’으로 여기며, 이들을 타자화 하는 부정적 태도를 함께 가지게 된 것이다(Nelson, 2005). 인간은 나이가 들면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에 연령 범주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히 구분하는 근거로는 약한 연속 범주이다(조혜자, 방희정,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본 선행 연구들에서, 젊은이들은 미래의 내집단인 노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각하고, 노인들의 경우에도 내집단인 노인보다는 외집단인 젊은이들에게 암묵적으로 더 강한 선호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Levy & Banaji, 2002; Nosek, Banaji, & Greenwald, 2002). 이러한 외집단 선호 현상은 다른 사회적 범주와는 달리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다. 이러한 특수 현상에 대한 탐색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자각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노인 집단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 및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이재모, 2009; 이현미, 2009; Greenwald, Nosek, & Banaji, 2003), 그 결과들은 다양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고정되어있는 단일한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연령, 성별, 노인과의 접촉 경험, 주관적인 노인 연령 등의 다양한 변인들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개인·사회적 변인들과 노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지금까지 행해진 대부분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태도 측정을 자기-보고식 검사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규범적 압력에 의해 노인에 대해 의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홍영오, 이훈구, 2001; Nosek et al., 2002). 이 때문에, 어떤 집단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태도를 측정을 위해서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나은영, 권준모, 2002; Greenwald, Pochlman, Uhlmann, & Banaji, 2009).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령 범주, 특히 편견의 대상이 되기 쉬운 노인 집단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상태이다.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구분과 측정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크게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의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명시적 태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쉽게 보고할 수 있는 의식적인 태도인데 반해, 암묵적 태도는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자동화된 처리 과정에 의한 태도이므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홍영오, 이훈구, 2001; Dovidio, Kawakami, Gaertner, & Hodson, 2002; Greenwald & Banaji, 1995).

동일한 대상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일치할 수도 있고, 서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두 태도 간의 불일치는 연령, 성, 인종 범주에 대한 편견과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자주 나타난다. 왜냐하면 편견에 의해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편견이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암묵적인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홍영오, 이훈구, 2001; Greenwald & Banaji, 1995; Greenwald et al., 2002; Tam, Hewstone, Harwood, Voci, & Kenworthy, 2006). 이에, 한 대상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태도 측정 외에도,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암묵적 태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aji, Baron, Dumham, & Olson, 2007).

두 태도 자체가 가지는 서로 다른 특성처럼, 두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명시적 태도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주로 측정하는 반면, 암묵적인 태도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나 점화기법과 같은 덜 의식적인 방법으로 측정한다. 특히 Greenwald, McGhee와 Schwartz (1998)가 고안한 IAT는 사회적 지식구조도 일반지식구조와 마찬가지로 개념과 속성들이 연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분법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 간 자동적인 연합의 구성과 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조혜자, 방희정, 2006). 이러한 IAT는 대상에 대한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반응을 측정하므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도구로 이용되어오고 있다. 특히 인종(방희정 등, 2010; Greenwald et al., 1998), 성(안상수 등, 2004), 지역(나은영, 권준모, 2002; 홍영오, 이훈구, 2001), 연령(Nosek et al., 2002; Tam et al., 2006)과 같은 범주에 대한 편견 관련 연구들에서 주로 널리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그 중에서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 두 수준의 태도 간에는 상관이 없거나, 약간의 정적 상관에 있으나 두 측정치의 평균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 젊은이-노인의 이름과 얼굴 자극을 이용한 IAT 연구에서, 가장 어린 연령의 응답자(8-14세)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71세 이상)까지 전 연령에 걸쳐 노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 암묵적 태도가 나타난 반면, 명시적 측정에서는 연령 증가와 함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Greenwald et al., 2003; Nosek, et al., 200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측정 및 비교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자기-보고식 태도 측정 도구와 더불어 연령에 대한 IAT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에 대한 태도 발달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김윤정, 정선아, 2001; 전미경, 김정현, 2008). 초기의 노인 연구들은 주로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보고한 연구들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한 연구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이현미, 2009; 한정란, 2000; Hummert, 1990).

먼저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를 측정한 선행 연구들부터 살펴보면, Palmore(1990)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생산성을 중시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며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학생, 대학생, 중년 각각을 대상으로 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연구들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나 고정관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병숙, 김수현, 1999; 이영숙, 2001; Hummert, 1990). 반면, 한국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규명한 김윤정과 정선아(2001)의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전 연령에 걸쳐 노인에 대한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재모, 2009; 이현미, 2009; Hawkins, 1996). 이처럼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성별이나 연령별 발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 연구들도

있었다. 먼저 성차가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반면,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이현미, 2009; 한정란, 2000). 이렇듯 노인에 대한 태도 간에 성차에서도 연구들 간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연령차가 나타난 연구들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 연구(이현미, 2009)와 함께, 중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 역시 있었다(이영숙, 2001; Hummert, Garstka, Shaner, & Strahm, 1994; Hummert, 1999에서 재인용). 그와 반대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임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이선자, 1989), 연령 별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역시 하나의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 연구는 명시적 태도연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편이다. 지금까지 실시된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전 연령에 걸쳐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8세-71세의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IAT 연구에서, 전 연령에 걸쳐 노인에 대해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암묵적 태도가 나타났다(Greenwald et al., 2003; Nosek et al., 2002). 노인과 관련된 단어나 사진 자극을 이용한 또 다른 IAT 연구에서도 20-30대 젊은이와 대학생들은 일관적으로 노인에 대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부정적인 반

응을 보였고, IAT 효과크기를 통해 알아 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정도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Castelli, Arcuri, & Zogmaister, 2003; Castelli, Zecchini, Deamicis, & Sherman, 2005; Tam et al,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실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 실험 참가자에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암묵적인 수준에서 활성화 시킨 후, 기억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억에 대한 수행, 자기 효능감, 노화에 대한 태도가 더욱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brams, Eller, & Bryant, 2006; Levy, 1996).

종합해 볼 때, 명시적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단일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령, 성별 등의 변인들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 간의 일관적 방향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결과, 전 연령에 걸쳐서 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특히 노인이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가질 경우에 이 후의 실질적인 인지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 및 노인을 대상으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두 태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령에 대한 태도의 특수성

최근 들어 성, 인종과 같은 범주에서 나타나는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 편견을 자기 범주화 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통합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기 범주화 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Nesdale, 199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범주화는 제한된 인간의 인지능력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그 대상 범주와 관련된 사회적인 의미내용과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범주화 처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범주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적용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조혜자, 방희정, 2006; Macrae & Bodenhausen, 2001).

한편,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인간이 긍정적 자기정체성을 추구하고자하므로, 자신이 속한 범주인 내집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자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외집단으로 지각하면서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았다(Taïfel & Turner, 1979). 또한 내집단에서는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데 반해, 외집단에게는 개개인이 가지는 특수성보다는 외집단 전체의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들의 특성을 과잉일반화함으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적용할 가능성 높다고 보았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단일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차원 내의 여러 범주에 속하여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고양시켜주는 지배집단에 속할 수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집단에 속하게 되어 불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인간은 자신의 내집단 대신 더 긍정적인 다른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두 이론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 범주화는 인간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능을 하게 하는 동시에 이후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특정 대

상에 사회 범주화 하는 것만으로도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편견이 생길 수 있다(Mackie & Hamilton, 1993; 조혜자, 방희정, 2006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성별 범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 실험 결과, 자신을 여성으로 자기 범주화한 여성의 경우, 사회화를 통해 습득된 여성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여성이라는 자신의 내집단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강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vy & Banaji, 2002). 그러나 연령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러한 내집단 선호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AT를 통해 암묵적 연령 정체성과 연령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 노인 실험 참가자들은 암묵적인 수준에서 젊은 실험 참가자들만큼 강하게 자신을 젊은이 범주에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Nosek et al., 2002). 구체적으로, 노인들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노인에 대해 더 긍정적이라는 내집단 선호를 보고하지만,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젊음을 더 선호하는 암묵적 외집단 선호를 보임으로써, 스스로를 노인보다는 젊은이에 정체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암묵적 외집단 선호현상은 결국 노인이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 성, 인종과 같은 다른 범주 연구와는 대조되어 나타나는 연령 범주에서만 특수한 현상이다(Greenwald et al., 2002; Levy & Banaji, 2002).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이러한 노인의 외집단 선호 현상을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을 통해 설명하기 위하여 Nelson(2005)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자기(self)-보호적이기 때문이라는 기능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즉, 젊음을 이상화하는

현대 문화 속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노화를 자기(self)와 연결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자기를 형성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내집단화하는 것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연령 범주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령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실험이 국내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경험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과의 접촉경험 간 관계

Allport(1979)는 어떤 집단에 대한 접촉 경험은 집단 상호간 관계를 향상시키고,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어떤 집단과의 긍정적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그 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 되고, 편견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Herek & Capitanio, 1996; Pettigrew, 1998). 이러한 접촉 가설의 긍정적 효과는 노인집단과의 접촉 경험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노인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명확한 인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더불어,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 간 상호 접촉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외집단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결국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서,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있다(Gaertner & Dovidio, 2000; Pettigrew, 1998). 이 맥락에서 노인과의 접촉을 선호하는 정도와 같은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제기되었는데, 젊은

이 집단과 노인 집단 간의 긍정적인 접촉은 노인에 대한 따른 편견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Abrams et al., 2006; Schwartz & Simmons, 2001).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그 대상을 긍정적인 것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Zajonc, 1968; Bornstein, 1989에서 재인용), 이러한 접촉경험의 질이 어떤 대상에 대한 명시적 태도 뿐 아니라, 암묵적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asgupta와 Greenwald (2001)의 연구에서는 IAT를 통해 테레사 수녀와 같은 긍정적인 노인 상에 단순히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인에 대한 암묵적 편견이 감소되었고, 노인과 관련된 단어와 긍정적 개념의 단어를 쌍으로 연합하여 이에 노출시키는 것이 노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Karpinski & Hilton, 2001). 이는 노인에 대한 편견이 노인에 대한 접촉의 양과 질에 따라 명시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인과의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단순한 접촉 빈도를 넘어 노인과의 상호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다.

연구문제

1. 대학생과 노인은 연령집단에 대해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일 것인가?

2.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는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인가?

3-1.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는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인가?

3-2.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는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인가?

4.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4-1.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과의 접촉경험의 빈도와 접촉의 질과 관련이 있을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J노인종합복지관과 종교기관에 방문하는 남녀 노인 66명과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에 참여한 총 134명 중 질문지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미응답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녀 노인 64명(남자 32명, 여자 32명)과 남녀 대학생 64명(남자 32명, 여자 3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범위는 대학생은 19-29세, 노인은 65-86세였고, 평균연령(표준편차)은 대학생의 경우 23.60세(2.55), 노인의 경우에는 71.07세(5.22)였다.

실험 참가는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한 참가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실시되었고, 모든 실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되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 수준에서의 태도는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암묵적 선호도로 측정했고, 노인에 대한 명시적 수준에서의 태도는 암묵적 선호도에서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나이 듦- 젊음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와 함께 노인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친구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로 구성된 명시적 태도로 측정되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본 연구에서는 나이 듦-젊음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개발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한 컴퓨터 실험을 실시하였다. IAT는 이분화된 표적 범주와 긍정/부정과 같은 속성 범주를 연합시키는 과제이다. 더 강하게 연합된 쌍일수록, 자동적으로 이에 대해 더 쉽고 빠르게 응답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러한 연합의 구성과 강도를 반응지연시간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연령(나이 듦-젊음)IAT에서 ‘젊음’이라는 표적 범주와 ‘긍정’이라는 속성범주를 연합하는 반응시간이 ‘나이 듦’을 ‘긍정’과 연합시키는 반응시간보다 빠르다면, 사람들은 나이 듦보다 젊음을 암묵적으로 선호함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AT는 Millisecond사(www.millisecond.com)가 제공하는 Inquisit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Greenwald 외(1998)가 제작한 IAT검사의 syntax를 수정하여, 연령 (나이 듦-젊음) IAT를 제작하였다.

표적범주와 속성범주. 나이 듦-젊음에 대

한 상대적인 암묵적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적범주는 남녀 노인과 젊은이의 사진 자극으로 구성되었고, 속성범주는 긍정 단어/부정 단어 자극들로 구성되었다. 표적 자극으로 쓰인 사진들은 사진 제공자의 동의하에 노인과 젊은이의 사진을 남녀별로 총 3장씩 선정하였다. 나이 듦-젊음에 대한 선호도 선택 시, 연령 차이보다는 표적자극에 대한 호감도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5명에게 사진자극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여, 호감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얼굴 사진은 제거하였다. 상기한 실험 자극 사진의 예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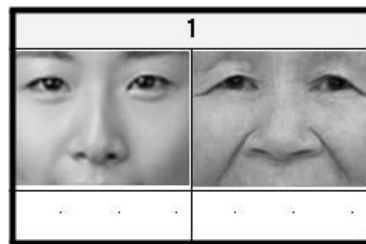


그림 1. 나이 든 사진- 젊은 사진 자극

속성자극으로 사용된 단어들은 긍정 개념의 속성 자극(기쁨, 사랑, 평화, 훌륭함, 즐거움, 영광)과 부정적 개념의 속성 자극(상처, 무서운, 끔찍한, 추잡한, 사악함, 지독함)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속성자극들은 Greenwald 등 (1998)이 제작한 IAT에서 사용된 긍정/부정 단어 들 중 일부를 번역하였으며, 이 중에서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서상규, 1998)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절차. IAT는 총 7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 나이 들-젊음에 대한 IAT 시행절차와 사진의 예

단계	시행 횟수	기능	왼쪽 반응기에 할당된 항목	오른쪽 반응기에 할당된 항목
1	20	연습	나이 든 사진	젊은 사진
2	20	연습	긍정 단어	부정 단어
3	20	연습	긍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부정 단어 + 젊은 사진
4	40	실전	긍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부정 단어 + 젊은 사진
5	20	연습	젊은 사진	나이 든 사진
6	20	연습	긍정 단어 + 젊은 사진	부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7	40	실전	긍정 단어 + 젊은 사진	부정 단어 + 나이 든 사진

(Greenwald et al., 2003, p.198의 그림에 나이 들-젊음에 대한 IAT를 대입시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범주 자극들을 두 개의 반응기(D(○), K(+)키)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실험이다. 모든 실험 단계에 걸쳐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화면 상단의 오른쪽과 왼쪽 각각에 범주명이 제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단어 자극이 하나씩 화면 가운데에 제시되며, 각 자극들은 하나의 범주에만 포함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렇게 화면 중앙에 나타난 자극이 왼쪽 범주에 속하면 D키를, 오른쪽 범주에 속하면 K키를 눌러 구분하도록 설정하였다. 1단계는 표적 범주인 나이 들/젊음의 사진 자극들을 변별하는 과제이고, 2단계는 속성 범주인 긍정/부정 단어 자극을 구분하는 연습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회기가 실시되었다. 3단계는 표적 범주와 속성 범주를 조합하여 제시되는 자극에 따라 분류하는 조합 과제로 20회기로 구성된 연습단계이고, 4단계는 3단계와 과제는 동일하되, 40회기로 구성된 실전단계이다. 5단계는 화면 상단에 제시된 표적 범주의 좌우 위치를 바꾸어 실시하는 역변별 하는 연습단계로 20회기로 구성되었다. 6단계는 3단계와 동일한 조합 과제이나, 5단계에서 제시된 바뀐 범주명의 위치에 따라 분

류하는 역조합과제로 20회기로 구성된 연습단계이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6단계와 동일한 과제이나, 40회기로 구성된 실전단계이다. 각 단계의 첫 번째 시행은 예비시행으로 분석에 포함되지 않고, 오반응에 대해서는 빨강색 'X' 표시가 나타나며 이를 정답으로 정정을 해야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또한 IAT 는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줄이기 위해 피험자별로 제시 순서가 역균형 화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표 1에서 IAT 의 절차에 대해 요약하였다.

명시적 선호도 검사

IAT에서 제시된 사진과 동일한 젊은-나이 든 사진을 사용하여 둘 씩 짝을 지어 만든 사진 문항을 실험 참가자에게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두 사진 중 누구를 더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답지에 적도록 했다. 선호도 점수가 제로 (‘0’) 점수보다 낮을수록 젊음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높고, 제로 점수보다 높을수록 나이 들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석된다. 즉, 선호도가 제로 점수보다 작을수록

나이 들에 대한 비선호와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함을 의미한다. 사진의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사진의 조합은 2가지의 형식으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명시적 태도검사(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김혜숙(2007)과 방희정 등(2010)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질문지를 바탕으로 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점수들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태도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고, 호감도는 “나는 노인을 좋아한다”, 신뢰도는 “나는 노인을 신뢰한다”, 친구 삼고 싶은 정도는 “나는 노인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내집단에 포함 정도는 “나는 노인을 나의 집단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의 질문에 대해 평정하는 것이다.

노인과의 접촉 빈도 및 접촉의 질 질문지

노인과의 접촉 빈도와 질은 대학생에게만 실시되었다. 접촉빈도는 노인과의 직접 접촉하는 빈도에 대해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접촉의 질은 Tam 등(2006)이 만든 3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접촉의 질 질문의 예로는 “노인과 잘 어울려 지내시는 편입니까?”, “노인을 친밀하게 느끼시는 편입니까?”와 같은 문항을 들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참가자들은 한 세트의 나이 들-젊음 IAT와 명시적 검사 질문지를 수행하였다. IAT 실험은 별도로 마련된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실험 참가자와 연구자 간 일대일로 개별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도착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15.6인치의 HP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도록 하였으며, 컴퓨터와 참가자 간 거리는 일정하게 고정하였다. 연구자는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참가자에게 IAT 실험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였고, 과제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IAT 실험과 함께 명시적 검사 질문지를 수행하였고, IAT와 명시적 검사 질문지의 제시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IAT와 명시적 검사 질문지의 수행 순서를 참가자별로 역균형화시켰다. 참가자가 모든 검사를 마치면 연구 목적과 실험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제공되었고, 원하는 참가자에 한 해 실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실험을 종결하였다.

자료 분석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실험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학생과 노인이 연령집단(나이 들-젊음)에 대해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 점수, 명시적 선호도 점수를 연령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셋째, 암묵적 선호도, 명시적 선호도 및 명시적 태도 점수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출되었다. 먼저 IAT 검사에서 산출된 결과

처리하는 D라는 IAT 효과크기(effect siz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평균반응시간에서 최초의 조합과제의 평균반응시간을 뺀 차이 값을 각 단계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얻어진 값을 의미한다(Greenwald et al., 2003). 이러한 암묵적 선호도 점수는 제로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집단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암묵적 점수가 제로 점수보다 낮을수록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나이 듦에 대한 비선호가 강한 것으로, 제로 점수보다 높을수록 나이 듦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젊음에 대한 비선호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IAT와 대비되는 명시적 선호도 검사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둘 씩 짝 지워진 사진 중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집단을 선택한 횟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이 후, 이 점수와 IAT의 D점수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점수에서 평균점수인 50(%)점을 감하였다(Dunham, Baron, & Banaji, 2007). 이러한 명시적 선호도 점수 역시 암묵적 선호도 점수와 마찬가지로 제로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집단에 대한 비선호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며, 해석 방식 역시 암묵적 선호도 해석 방식과 동일하다.

명시적 태도 검사에서는 노인에 대한 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으로 포함하고 싶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넷째,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의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각각 이원 분산 분석하였고,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노인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과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간 상관분석을 연령별로 실시하였다.

여섯째, 대학생이 경험한 노인과의 접촉빈도 및 접촉의 질과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명시적 선호도 점수 및 암묵적 태도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결 과

연령에 따른 내집단 선호/외집단 편견 여부

연령에 따라 명시적 및 암묵적 수준에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타적으로 지각하는 외집단 편견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연령별 명시적 선호도 및 암묵적 태도 점수를 살펴보았다(표 2). 먼저 대학생의 경우, 명시적 선호도($M=-.14$) 및 암묵적 선호도($M=-.84$)에서 내집단인 젊은이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인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비선호가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명시적 선호도($M=-.29$) 및 암묵적 선호도($M=-.86$)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와 내집단에 대한 상대적 비선호가 나타났다.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비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명시적 태도 비교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호감도/신뢰도/친구 삼고 싶은 정도/내집단 포함 정도)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 및 성별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측정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성별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	명시적 선호도	암묵적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학생	남	3.38(.61)	3.81(.64)	3.41(.80)	3.38(.87)	-.26(.22)	-.92(.25)
	여	3.19(.78)	3.56(.76)	3.31(.93)	3.56(.84)	-.02(.24)	-.79(.38)
	전체	3.28(.70)	3.69(.71)	3.36(.86)	3.47(.85)	-.14(.27)	-.84(.26)
노인	남	3.09(.82)	3.22(.83)	3.75(.62)	3.90(.53)	-.31(.22)	-.76(.36)
	여	2.97(.90)	3.22(.87)	3.63(.87)	3.63(.87)	-.27(.24)	-.94(.33)
	전체	3.03(.85)	3.22(.84)	3.69(.75)	3.77(.73)	-.29(.23)	-.86(.35)

종속변인인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Pillais = .22, $p < .001$). 즉, 종속변인인 노인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에서 연령에 의한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종속 변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F 값을 확인하였다.

연령. 독립변인으로 연령을 투입한 결과, 노인에 대한 신뢰도에서만 연령 차이가 발생하였다($F(3,124)=11.51$, $p < .01$). 구체적으로는 대학생($M=3.69$)이 노인($M=3.22$)에 비해 노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명시적 선호도 비교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이원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에서 연령($F(3,124)=13.90$, $p < .001$)과 성별($F(3,124)=11.36$, $p < .01$)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했다($F(3,124)=5.52$, $p < .05$).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여자대학생($M=-.02$)인 경우,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추가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왔다. 먼저 성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여자인 경우에만 대학생과 노인 간의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F(1,62)=16.94$, $p < .001$). 자세히는 여자 대학생($M=-.02$)이 여자 노인($M=-.27$)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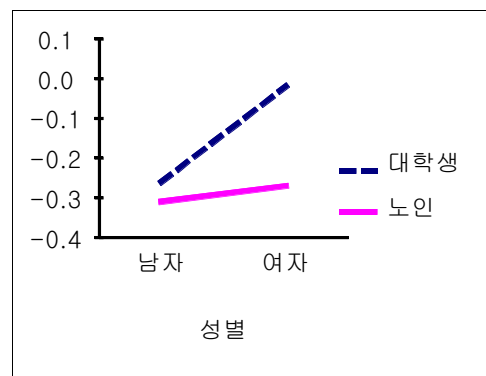


그림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

노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만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에서의 성차가 나타났으며($F(1,62)=16.77, p<.001$), 여자대학생($M=-.02$)이 남자대학생($M=-.26$)에 비해 명시적 수준에서 노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암묵적 태도 비교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 및 성별로 이원 분산 분석을 시행한 결과,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124)=8.58, p<.01$). 구체적으로는 남자노인($M=-.76$)인 경우,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림 3에 도표로 제시하였다.

추가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먼저 성별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F(1,62)=4.15, p<.05$)과 여성($F(1,62)=4.45, p<.05$) 모두에서 대학생과 노인 간의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하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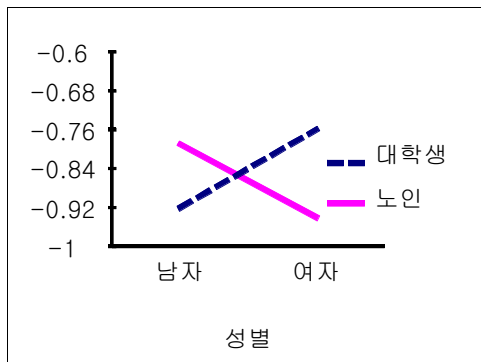


그림 3.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의 상호작용 효과

남자의 경우에는 노인($M=-.76$)이 대학생($M=-.92$)에 비하여 암묵적인 수준에서 노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노인($M=-.94$)이 대학생($M=-.79$)에 비해 노인을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령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만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에서의 성차가 나타났으며($F(1,62)=6.46, p<.05$), 여자 대학생($M=-.79$)이 남자 대학생($M=-.92$)에 비해 암묵적 수준에서 노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 상관

연령별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간 상관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내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반면,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명시적 선호도, 암묵적 선호도 간에도 유의한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의 경우에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내 변인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반면, 명시적 태도와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접촉경험 간 상관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접촉 빈도 및 질과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간의 상관 분석한 결과. 먼저 노인과의 접촉 빈도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

표 3. 연령별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 상관

		명시적 태도				명시적 선호도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는 정도	내집단 포함 정도	
대학생 (N=64)	신뢰도	.34**				
	친구 삼는 정도	.49**	.32*			
	내집단 포함 정도	.36**	.35**	.24*		
	명시적 선호도	.15	.02	.10	.09	
	암묵적 선호도	.11	.25*	.12	.20	-.22
노인 (N=64)	신뢰도	.50**				
	친구 삼는 정도	.34**	.36**			
	내집단 포함 정도	.27*	.34*	.47**		
	명시적 선호도	.11	.23	.08	.04	
	암묵적 선호도	-.01	.14	-.06	-.10	.01

* $p < .05$, ** $p < .01$, *** $p < .001$

이 없었다. 반면, 노인과의 접촉의 질은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중 호감도($r = .54, p < .01$), 신뢰도($r = .34, p < .01$), 친구삼고 싶은 정도($r = .42, p < .01$),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r = .25, p < .05$) 모두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좋을수록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과의 접촉의 질과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와 암묵적 태도 간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과 노인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를 알아보고,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며, 노인에 대

한 태도가 노인과의 접촉 경험과 같은 개인·사회적 변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령 집단에 따른 내집단/외집단 편견

각 변인에 대한 연령별 명시적 선호도 및 암묵적 태도 점수를 살펴 본 결과, 대학생의 경우,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모두에서 내집단인 젊은이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인 노인에 대한 상대적인 비선호가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에는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모두에서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 외집단 선호와 내집단인 노인에 대한 상대적 비선호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연령 범주에 대한 암묵적 자기 범주화를 측정한 조혜자와 방희정(2006)의 연구와 8-71세를 대상으로 연령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한 Nosek 등(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성별, 종교와 같은 사회적 범주에서는 외집단에 비해 내집단에 대해 더 강한 선호를 보이지만, 연령 범주에서는 이러한 내집단 선호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Levy와 Banaji (2002)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모든 인간은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연령 범주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히 구분하는 근거로는 약한 연속 범주(조혜자, 방희정, 2006)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내집단인 노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각하고, 노인들은 적어도 암묵적 수준에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젊은이라는 외집단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Greenwald et al., 2003; Levy & Banaji, 2002). 이러한 노인의 외집단 선호는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다른 사회적 범주와는 달리 연령 범주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기 긍정성에 의한 자동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므로, 대학생 뿐 아니라 노인 역시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집단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젊은이 집단을 더욱 선호하고, 노인에 대해 탈 동일시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조혜자, 방희정, 2004).

두 번째로 이를 자기(self) 위협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Edwards & Wetzler, 1998; Nelson, 2005에서 재인용; Synder & Meine, 1994). 자기긍정성 추구와는 별개로 현재 연구에서 대학생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젊은 집단을 내집단으로 간주하고 나이든 집단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더

구나 현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에 만연하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내재화하게 만드는 상당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지게 된 노인에 대한 개념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정적으로 인지된 노인을 내집단으로 자기 범주화하는 것은 자기에게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이 미래의 자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외집단화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시절부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화 과정을 지속해오면서, 정작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노인이라는 내집단에게 가해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할 기제를 개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취약해 질 수 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처양식으로써, 가능한 한 자신을 노인으로 정체화 하여 내집단화 하는 시기를 늦추고, 젊은이를 주관적으로 내집단화함으로써, 젊은이들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대학생들은 자신의 위협적인 미래의 모습인 노인을 외집단화 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내재된 노인과 노화와 관련된 것들을 자신과 연결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외집단인 젊은이들을 더욱 선호할 수 있다(조혜자, 방희정, 2006). 하지만 아직 노인이 내집단인 노인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노인이 자신을 노인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젊은이로 주관적으로 내집단화한다는 입장은 가설적 수준으로, 노인의 주관적 범주화와 이것이 노인 집단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두 집단에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노인에 대한 비선호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회피하여, 이를 직면할 기회 자

체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처기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령범주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젊은이와 노인 집단에게 이에 따른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의 경우, 스스로를 노인 집단으로 포함시키면서도 노인에 대한 긍정성을 체험함으로써, 노인 집단을 넘어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젊은이들도 미래의 자신의 모습인 노인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노화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므로써, 스스로의 노후 준비 뿐 아니라, 현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의식적 태도,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에서의 성차 및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는 신뢰도에서만 연령 차이가 나타났다. 더 자세하게는 대학생이 노인에 비해 노인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명시적 선호도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 특히, 남자 노인이 노인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인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성차가 나타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이선자(1989)의 연구와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사회적 생산성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산업사회에서 요구

하는 생산성이 낮은 남자 노인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인이 대학생에 비해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부정적인 이유를 Hummert (1999)가 주장한 발달학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그는 노화에 대한 인지 도식은 개인이 경험해온 노화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직접 노화의 과정을 경험 중인 노인은 다양한 노화의 경험을 통해 노인과 노화에 대한 자신의 인지 도식을 수정·확대함으로써, 대학생보다 복잡한 노인에 대한 인지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노화 과정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왔고, 노화는 신체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실질적 상실을 포함함을 감안할 때, 노인이 경험해 온 노화 경험에는 부정적 측면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결국 노인이 지각한 노인에 대한 복잡한 인지구조 역시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도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고, 남자 노인이 암묵적 수준에서 노인에 대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시적 선호도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였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살펴보는 것은 이후 노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서 각 집단별로 서로 다른 개입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에 대한 암묵적 및 명시적 태도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뒷받침할 만한 선행연구의 부족과 적은 실험참가자 수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수와 연령별 세분화된 집단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차와

연령차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 대학생 집단과 노인 집단 각각에서 모두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 내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지만, 노인에 대한 암묵적 선호와 명시적 선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8-71세까지의 연령에 걸쳐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Nosek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 연령, 인종과 같은 편견에 취약한 범주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가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이유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한다(나은영, 권준모, 2002; 안상수 등, 2004; 홍영오, 이훈구, 2001).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 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신이 어떠한 암묵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명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스스로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 명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때는 보다 솔직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스스로를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각하기 때문에, 노인 집단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부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보고하지 못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전통적 경로사상과 생

산성을 중시하는 가치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스스로를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그 기저에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암묵적 부정성을 보고할 수 없으므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하지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암묵적 태도 측정에서는 이러한 부정성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두 태도 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와 명시적 선호도 간의 유의한 차이 역시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면 측정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지만, 노인에 대한 선호도 검사는 나이 든 사진과 젊은 사진 중 자신이 선호하는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분법적 방식이었다.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있고, 양분적인 노인에 대한 선호도 검사에 비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연속성 상의 명시적 태도에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더 컸을 수 있다. 즉,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가 선호도에 비해 솔직하게 표현되지 못 했을 수 있겠고, 이로 인해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선호도 간의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명시적 태도, 명시적 및 암묵적 선호도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계있는 변인으로써 노인과의 접촉빈도와 접촉의 질을 측정한 결과, 노인과의 접촉 빈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노인

과의 접촉의 질은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즉, 노인과의 접촉의 빈도에 관계없이, 노인과의 접촉의 질이 명시적 수준에서의 호감도, 신뢰도, 노인을 친구 삼고 싶은 정도와 내집단에 포함하고 싶은 정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과의 접촉 선호도와 같은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Abrams 등(2006)과 Schwartz와 Simmons(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접촉 빈도는 노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관련이 있고, 접촉의 질은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주장한 Tam 등(2006)의 연구와도 일부 일치한다. 하지만 호감도, 신뢰도, 친구 삼고 싶은 정도와 내집단 포함 정도와 접촉 경험의 질의 유의한 관계는 모두 명시적 수준에서 나타난 것이고, 사회적 기대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암묵적 수준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암묵적 수준에서의 태도와 접촉 경험의 질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권장된다. 특히 이 연구는 단지 상기 변인들 간의 관련성만을 분석한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접촉 경험의 빈도와 접촉 경험이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상관분석만을 실시한 결과여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단순 접촉 빈도가 아닌 접촉 경험의 질과 관련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인과의 긍정적 접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인과의 비노인 집단 간의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 경로사상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성취 지향적 가치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현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은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과 동시에 노인을 사회적 짐으로 지각하는 이중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에게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후 노인에게 대한 실질적 행동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에게 대해 태도를 확인하는 연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과 노인 스스로가 지각하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 연구를 통해 노인과 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노인을 이해함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미·거시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명시적 측정도구와 함께 암묵적 측정도구를 함께 사용하였다. 노인 집단 역시 성별, 지역 범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주이므로, 명시적 측정도구만으로 태도를 측정하는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등을 이유로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명시적 태도와 더불어 노인에게 대한 무의식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암묵적 태도까지도 측정함으로써, 노인에게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노인에게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함께 측정하여 비교하는 작업은 노인에게 대한 태도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태도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때, 각 상황에 알맞은 서로 다른 개입방법을 통해 이

후 노인에 대한 행동반응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가 모두 부정적일 때와 어느 한 쪽만 부정적인 경우, 그리고 부정적 태도의 보유 대상이 노인인지 아니면 다른 집단인지에 따라, 각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을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의 발달과정을 확인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노인에 대한 태도 발달과정과 태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각 연령 및 성별 집단에 알맞은 노인 관련 교육이나 세대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노인 문제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개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가 변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가정 외의 환경에서 뿐 아니라 가족의 분화로 노인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감소하고, 대개는 대중매체 속의 노인에 대한 간접 경험이기 쉽다. 노인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세대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은 대중매체와 같은 노인에 대한 간접적 경험에 무관할 수 없다. 앞으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 노출 전 후의 태도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 역시 의미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 참가자가 각 집단별 64명으로 적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실험에 참여한 노인 실험

참가자들의 나이 범위가 65-85세로 매우 광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노인이라는 하나의 동질한 집단으로 묶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노화의 수준과 노인의 인지 및 운동 능력의 감퇴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넓은 연령 범위는 각 실험참가자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실험 참가자간 연령 차이와 같은 변인들이 연구 결과에 혼입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 연령 분류(Brody, 1977)와 같은 기준을 통해 노인 집단을 세분화하거나, 노인의 연령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여부 자체보다는 개인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수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과 노인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연령집단을 대학생과 노인집단이라는 두 집단으로만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두 집단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연령별 태도 발달 과정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해석만이 가능할 것이다. 연령에 따른 범주 구분이 어린 시절부터 인간이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인지 처리 과정임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

는 아동기에서부터 노인집단에 이르기까지 연령집단을 더욱 세분화하여, 발달학적 입장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윤정,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 173-18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25-140.
- 서병숙, 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회*, 19(2), 97-111.
- 서상규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빈도 7 이상(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4). 내외집단 규범 정보가 외현 및 암묵적 편견에 미치는 통제적 영향: 성 편견과 지역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5-186.
- 원영희 (2003). 노인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 275-296.
- 이선자 (1989). 발달학 측면에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 93-105.
- 이영숙 (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21-239.
- 이재모 (2009). 한일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45, 117-140.
- 이현미 (2009). 노인 및 노인의 근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미경, 김정현 (2008). 초등교과서에 재현된 노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3), 663-685.
- 조혜자, 방희정 (2004). 자기 긍정성과 성 고정관념: 무엇이 여성에게 더 우선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181-201.
- 조혜자, 방희정 (2006).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245-265.
- 통계청 (2009). 청년·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한정란 (2000).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연세교육 연구*, 13(1), 191-206.
- 홍영오, 이훈구 (2001). 암묵적 연합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85-204.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brams, D., Eller, A., & Bryant, J. (2006). An Age art: The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Contact and Stereotype Threat on Performance and Intergroup Bias. *Psychology and Aging*, 21(4), 691-702.

- Banaji, M. R., Baron, A. S., Dunham, Y., & Olson, K. (2007). The Development of Intergroup Social Cognition (pp.87-102). In M. Killen, & S. Levy (Eds.), *Intergroup Relationship: An integrative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Bornstein, R. F. (1989). Exposure and Affect: Overview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1968-1987.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65-289.
- Brody, E. M. (1977). *Long-Term Care of Older People: A Practical Guide*. New York: Human Science Press.
- Castelli, L., Arcuri, L., & Zogmaister, C. (2003). Perceiving Ingroup Members Who Use Stereotypes: Implicit Conformity and Similar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63-175.
- Castelli, L., Zecchini, A., Deamicis, L., & Sherman, S. J. (2005). The Impact of Implicit Prejudice about the Elderly on the Reaction to Stereotype Confirmation and Disconfirmation. *Current Psychology*, 24(2), 134-146.
- Dasgupta, N., & Greenwald, A. G. (2001). On the Malleability of Automatic Attitudes: Combating Automatic Prejudice with Images of Admired and Dislik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00-814.
- Dovidio, J. F., Gaertner, S. E., Kawakami, K., & Hodson, G. (2002). Why Can't We Just Get Along? Interpersonal Biases and Interracial Distrus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 88-102.
- Dunham, Y., Baron, A. S., & Banaji, M. R. (2007). Children and Social Groups: A Developmental Analysis of Implicit Consistency among Hispanic Americans. *Self and Identity*, 6, 238-255.
- Gaertner, S. L., & Dovidio, J. F. (2000).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Greenwald, A. G.,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G., & Banaji, M. R. (1995). Implicit Social Cognition: Attitudes, Self-esteem, and Stereotypes. *Psychological Review*, 102, 4-27.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Nosek, B.,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Herek, G. M., & Capitano, J. P. (1996). Some of

- My Best Friends: Intergroup Contact, Concealable Stigma, and Heterosexuals Attitudes Toward Gay Men and Lesbi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4), 412-424.
- Hummert, M. L. (1990). Multiple Stereotype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 - 193.
- Hummert, M. (1999).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on Age Stereotypes. In Hess, T, M., Blanchard-Fields, F. (Eds), *Social cognition and aging*. Academic Press.
- Karpinski, A., & Hilton, J. L. (2001). Attitudes and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774-788.
- Levy, B. (1996). Improving Memory in Old Age Through Implicit Self-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092-1107.
- Levy, B. R., & Banaji, M. R. (2002). Implicit Ageism. In Nelson, T. D. (Eds). *Ageism: Stereotyping and Prejudice Against Older Persons*. The MIT Press.
- Macrae, C. N., & Bodenhausenm G. V. (2001). Social Cognition: Categorical Person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239-255.
- Nelson, T. D. (2005). Ageism: Prejudice Against Our Feared Future Self. *Journal of Social Issues*, 61(2), 207-221.
- Nesdale, A. R. (199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Ethnic Preferences and Social Cogni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501-519.
- Nosek, B. A., Greenwald, A. G., & Banaji, M. R. (2002). Harvesting Implicit Group Attitudes and Beliefs From a Demonstration Web Site.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6(1), 101-115.
-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Y: Springer Publishing Co.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65-85.
- Schwartz, L., & Simmons, J. P. (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 127-137.
- Snyder, M., & Meine, P. (1994). Stereotyping of the Elderly: A Functional Approach.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63-82.
- Tajfel, H. & Turner, J.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Austin, W. G., & Worschel, 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CA: Brooks/Cole Publishing, Pacific Grove.
- Tam, T., Hewstone, M., Harwood, J., Voci, A., & Kenworthy, J. (2006). Intergroup Contact and Grandparent-Grandchild Communication: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Implicit and Explicit Biases Against Older People. *Group Process & Intergroup Relation*, 9(3), 413-429. <http://www.millisecond.com>
- 논문투고일 : 2012. 1. 5.
1차 심사일 : 2012. 1. 20.
게재확정일 : 2012. 2. 9.

The Differences of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 Older People in College Students and Older People

Hyun-Ji Lee

Hee-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ccording to age and gender. For this research, 64 college students and 64 older people completed Explicit Attitudes Rating Scales (likability/ trustfulness/ companionship/ group membership), Explicit Preference Test, and Young-Old 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college students presented in-group preference and out-group bias on both explicit and implicit level whereas out-group favoritism was presented in the older participants on both explicit and implicit level, which meant the older participants preferred the young to the old. In both the group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age attitude. In addition, college students showed an explicit preference for the old over the older participants whereas only interaction effect(age and gender) was appeared on implicit preference toward older peopl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explicit attitude, implicit attitude, IAT, contact experience